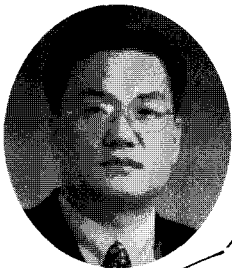


농업의 미래(Ⅱ)



올해 쌀 증산시책 추진 방향

‘쌀’ 기초식량·농가소득작목, 식량안보차원 반드시 자급해야
쌀산업 경쟁력 고품질에 달려, 다양한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



임재민
농림부 농산과 서기관

최 근 먹거리 종류가 다양화되고,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외 식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 소비량이 생산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DDA 및 WTO 재협상 등으로 인해 쌀 시장개방의 폭은 커질 것으로 전망 하고 있고, 특히 우리와 인접한 중국에서는 우리쌀에 손색이 없 는 양질미가 대량생산되어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소비패턴은 가격보다 맛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더 욱 뚜렷해지고 있는데다 양보다는 품질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어 소비자가 믿고 찾는 쌀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 하여 정부는 “쌀 산업의 경쟁력은 고품질에 달려 있다”는 인식 하 에 지난해부터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 밥맛을 떨어뜨리는 질 소질 비료사용 감축, 발벼의 정부수매제외, RPC의 고품질 벼 위 주 매입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고 금년도도 고품질 쌀생산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쌀 수급균형을 고려한 적정 벼재배면적 유지

쌀 적정생산 유도를 통한 쌀의 수급균형을 위해 금년도도 벼재 배면적을 지난해 보다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처

음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2.6%에 해당하는 27,500ha의 논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휴경제)를 시행하여 3년간 벼를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ha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이 부적합한 지역은 벼보다는 콩·사료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논에 콩 재배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농가소득과 무관한 논(공공기관 소유 논)과 타용도 전환을 완료한 논(도로·주택부지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벼이외 타작물이 재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미질이 떨어지는 밭벼와 시설하우스에 후작으로 벼가 가능한 재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농가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품질 벼품종 재배 확대

고품질 벼품종 재배를 확대하고, 벼 품종간 혼합진조·가공판매로 인한 쌀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로는 2~3개 품종으로 특화를 유도하여 지역 브랜드 쌀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농촌진흥청, 시·도,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품질 벼품종 18개를 추천 품종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고품질 정부보급종 공급량을 1만 4천톤('02년 10만톤)으로 늘리는 한편, 정부보급종을 공급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기술원, 원종장 시범포와 독농가산 고품질 품종을 자율교환 할 수 있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고품질 벼 종자지원센터(673개소)」를 설치·운영하여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전체 면적의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 재배기술 지도·강화

과거 조기이앙, 밀식, 다비재배와 같은 수량

중심의 재배기술에서 적기이앙, 소식(小植), 소비(小肥) 등 도체(稻體)의 내병충성과 품질을 높이는 재배기술로 전환 하기 위해 새해영농기술교육과 지역단위 농가기술지도를 통해 고품질 쌀 재배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통일계 품종의 다수확을 위한 재배관행으로 최적시기보다 7일정도 빨라진 모내기시기에 대한 「정상적인 이앙시기 환원운동」을 전개하고, 이앙주수는 종전 평당 75~85주에서 70~75주로 줄이도록 유도하며, 질소비료 과용에 따른 미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10a당 표준시비량인 11kg까지('02년 평균 12.3kg)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마을별·들녘별 공동연대 책임제를 추진하여 과다 시비한 경우 1년차 경고, 2·3년차 보조금 감액 또는 전액 미지급 등의 제재조치를 하며 또한 비료판매상황, 영농기장 이행사항 점검과 같은 사회적 검증강화를 통한 과다판매해당 조합 및 지역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논에 벗짚환원 및 왕겨 등 부산물을 최대한 논에 되돌려 주고, 규산질 비료·토양개량제 공급(521억원, 38만9천ha), 객토지원(24억원, 2천ha)과 겨울철 노는 논에 사료·녹비작물 재배 등 적극적인 푸른들가꾸기(13만8천ha)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PC를 생산·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

고품질 쌀의 규모화되고 체계적인 생산·유통을 위하여 규모화된 RPC를 생산·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한다. RPC와 농가간에 품종·이앙시기·시비량·수확기 지정 등의 계약재배



를 확대하고, 품종별 구분수매·저장·가공 등의 수확후 관리와 생산체계의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RPC가 중심이 되는 「고품질 계열화」 사업을 강화하여 올해는 계약재배면적을 20만ha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PC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정부 보급종 우선보급, 영농자재(육묘상자, 상토, 유기질비료)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RPC간 품질향상 경쟁촉발을 위하여 계열화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 RPC에 대한 브랜드개발비 지원우대와 함께 자동화육묘센터 설치시 우선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과정상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포장양곡에 산지, 품종, 가공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생산·유통과정에서의 고품질화 저해요소를 파악,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상재해 및 병충해 대비 철저

전세계적으로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초 대설과 2001년 봄의 대규모 가뭄, 지난해 가을 태풍 「루사」 내습과 같은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배수개선시설 조기설치,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대표품종이 집중화되는 경향에 따라 돌발 병해충에 의한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방제 위주의 시스템을 총 동원하여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적기방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세균성벼알마름

병, 벼이삭마름병, 노린재와 같은 병해충 적기 방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쌀 소비촉진 대책주진

고품질쌀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쌀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으로도 학교급식용·군관수용·사회복지용 쌀공급을 신곡(新穀)으로 하여 쌀 소비기반 유지('03 : 1,090천석) 및 가공용·주정용 저가공급을 통한 소비확대('03 : 1,250천석)와 함께 쌀 가공제품 기술의 개발 및 조기 산업화를 촉진하여 가공용 소비 확대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젊은층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10~2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월드컵 축구스타를 쌀소비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한데 이어 Love米 캠페인과 각종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03년은 고품질 쌀 생산 정착의 해

쌀은 국민의 기초식량과 농가의 소득작목으로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쌀만큼은 반드시 자급해야 하며, 대내외적인 양정 여건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지난해가 “고품질쌀 생산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고품질 쌀 생산 정착의 해로 정하고 고품질벼 재배면적 70%이상 확대재배와 질소질비료 감축시비, 친환경 재배, 적기수확과 적정건조·저장·가공 등 수확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쌀의 품질을 한단계 높이는 해가 될 것을 기원한다. **농업정보**